

광주시 어린이안전체험관 이용객 2배 ↑

1분기 총 4283명 이용…지난해 대비 194% 늘어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체험관 이용객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청사 1층에 위치한 어린이안전체험관 1분기(1월~3월) 이용객이 140개 단체, 총 428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201명 대비 194% 증가한 수치다.

어린이안전체험관 이용객은 개학 기간에는 다소 이용객이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올해는 예약 및 체험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11월 문을 연 어린이안전체험관은 4~12세 사이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지하철체험, 구조요청 신고, 지진대피요령, 승강기 안전체험 등 13종의 체험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체험관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광주시 ‘바로예약’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평일 오후 3시 이후 현장 접수를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도기 기자

전남, 태풍 등 기상이변 대비 안전 강화

총 1930억원 들여 128지구 위험요소 점검



전남도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올해 총 1930억 원을 들여 128개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 해소를 나선다.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47지구(602억 원) ▲풍수해생활권 정비 16지구(843억 원) ▲급경사지 정비 40지구(344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5지구

(141억 원),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이 가운데 올해 신규 사업은 54개 지구로 자연재해 취약지역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함평 염다천, 함평천, 영암 개신지구 등 인명피해 우려가 큰 지구는 전남도에서 직접 사업을 발주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상시 지도·점검 활동도 펼친다.

이와 함께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은 신규로 4지구가 확대돼 인명피해 우려 3대 분야인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중심으로 피해 저감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김 호 기자

광산구, 중소기업 일터개선 사업 확대

여성기업 일터·화재 예방시설 개선 신설

광산구가 중소기업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일터개선 지원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는 지난해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렸다.

올해는 중소기업 일터 개선뿐만 아니라 여성기업 일터 개선과 화재 예방 시설 개선을 신설했다.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일터 개선 분야는 △작업장 바닥·천장·작업대 개보수 △휴게공간·식당·화장실 등 복지 공간 개보수 △분진 및 유해 물질 제거 시설 설치 등 작업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화재예방시설 개선 분야는 소화설비, 무선 화재 감지 시스템 등과 같은 경비시설, 피난 구조설비 등

을 기업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광산구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없앴으며, 지원 비용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30일까지 광산구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광산구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062-960-3638)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과 금액을 확대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동기 기자

북구,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

관내 거주 19~39세 280명 선착순…최대 5만원

북구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구입·구독 비용을 1인당 연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직 활동과 자기계발에 나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북구에 주소를 둔 19~39세 청년 28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는 챗GPT PLUS, 한컴오피스(한컴독스 포함), MS오피스, 어도비, 망고보드, 미러캔버스 등 6종이다.

소프트웨어의 구입일이나 구독 종료 기간이 올해 1월1일 이후여야 한다.

이달부터 매월 말 지원금 신청 서류를 접수, 심사를 거쳐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준다. 북구청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구직 활동과 자기계발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이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기 기자

사 회

생태교란종 몸살 광주천…“체계적 퇴치 필요”

붉은귀거북, 번식력 뛰어나고 천적 없어

정확한 실태 파악 어려워…광주시 “예산 편성”



지난 17일 광주 동구 광주천변 인근에서 발견된 생태계교란종 붉은귀거북 2쌍.

이외에 포식성이 강한 배스와 블루길도 광주천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다.

5월 이후에는 생태계교란 식물인 가시박, 양미역취, 돼지풀, 도깨비가 지 등이 자라나 산책로를 뒤덮는 것

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식물은 생장이 빠르고 주변 식생을 뒤덮어 토종 식물의 성장을 막는다.

광주천에 생태계교란 동·식물이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지만 교란종

의 종류와 규모 등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교란 동물 퇴치 작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매년 해오던 생태 교란 식물 퇴치 작업마저 예산 부족 문제로 지난 2년간 멈췄다.

홍기혁 광주천모래톱지킴이 회장은 “균형 잡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생태계교란종 조사와 체계적인 퇴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다른 습지에 서식하는 교란종 퇴치 작업을 벌이면서 광주천 교란 식물 제거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 교란식물을 제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광주천에는 멸종위기종 I 급 수달, II급 살, 천연기념물 원앙 등이 서식하면서 보존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김도기 기자

“AI 기술 역량 활용”…호남대·광주대, 글로벌대학 공동 도전

박상철 호남대 총장·김동진 광주대 총장 연합대학 선포식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글로벌대학 공모에 호남대학교와 광주대학교가 연합 모델로 도전한다.

호남대와 광주대는 18일 오후 호남대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 글로벌대학 추진을 위한 ‘연합대학 선포식’을 갖고 ‘호남대·광주

대’ 연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연합대학 선포식에는 박상철 호남대 총장과 김동진 광주대 총장을 비롯해 양 대학의 기획처장과 사업단장, 광주시 김기숙 교육청년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박 총장은 “양 대학이 보유한 AI 및

디지털 기술 역량을 활용해 노동시장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특화모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두 대학의 연합은 광주 청년들의 정주 기반을 확장하고, 서비스 산업 중심도시로의 광주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총장은 문화도시 광주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 창조문화 허브 도시로의 광주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공동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연합대학은 광주형 일자리 혁신을 위한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연계를 통해 청년 고용 및 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호남대와 광주대는 이날 교육부의 2025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연합형 유형에 가신정을 완료했다. /이동기 기자

서구,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빛과 바람의 라이딩’

시각장애·비장애인 텐덤바이크로 영산강변 20km 완주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영산강 자전거길에 ‘빛과 바람의 라이딩’ 마음을 잇는 동행’ 행사로 화사하게 물들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페달을 맞춘 이번 행사는 광주영광원의 주관으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기부자모임인 서구아너스, 광주서구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따뜻한 소통과 연대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텐덤바이크 라이딩에는 비장애인 파일럿과 시각장애인 스토커가 한 팀을 이뤄 총 20팀 4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극락교를 출발해 서창교와 승용교를 경유·왕복하는 약 20km 코스를 함께 완주하며, 서로의 호흡과 신뢰 없이는 완수할 수 없는 도전을 함께했다.

광주영광원과 두바퀴사랑봉사회가 20여 년간 이어온 ‘동행 라이딩’의 의미가 더욱 빛난 순간이었다.

본격적인 주행에 앞서 시각장애인 복지와 동아리의 팬플룻 연주와 창창 공연이 펼쳐졌으며, 이어 모든 참가자가 안대를 착용한 채 청각에만 의지해 음악을 감상하는 ‘블라인드 음악회’가 진행돼 장애 감수성을 일깨우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행사장에 마련된 ‘공감 체험존’에서는 텐덤바이크, 휠체어 주행, 흰지팡이 길찾기 체험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이동약자의 일상 속 불편을 직접 체험하며 이해의 폭을 넓혔다.

조영미 광주영광원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텐덤바이크 파일럿으로 참여한 김이강 서구청장은 “두 사람이 한 몸처럼 달려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깨달음을 통해 ‘함께 달리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장애가 불편이 되지 않는 도시를 위해 무장애 생활환경과 마음의 접근성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조선주 기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모든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안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집단급식소 등 식품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시설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7곳,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 포함) 6곳, 일반음식점 5곳 등 총 20개 지하수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해 20곳 모두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식품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안전 점검으로, 식품용수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사용 중인 지하수를 채수해 검사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과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급성 위장염의 주요 원인 병원체로, 오염된 지하수로 세척한 채소나 가열하지 않은 해산물 섭취, 감염자와의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감염되면 24~48시간 잠복기를 거쳐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원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등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며 “겨울과 봄철에는 음식물을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여수서 복어 먹던 60대 3명 중독 증세…병원 이송

복어를 잘못 먹고 중독 증세를 보이는 60대 남성 등 3명이 해경과 소방당국에 의해 긴급 이송됐다.

지난 19일 전남 여수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2분께 여수시 남면 연도리에서 복어를 먹던 A(60대)씨 등 3명이 복어독 중독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해경은 정비함을 통해 A씨 등을 이송, 여수 월전항에서 119구급대에 이들을 인계했다. A씨 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신 마비 증세를 보이면서 의식을 잃었고, 함께 복어를 먹은 60대 여성 B씨 등도 복어독 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기사제보 062)363- 8800



호남매일

www.homae.co.kr